“비움과 나눔 정신 전해요”

조계종, MBC와 공동캠페인 실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사회에 무소유와 비움의 가르침을 알리는 법석이 마련된다. 조계종은 MBC와 공동으로 오는 5월8일 서울 조계사 및 우정국로에서 ‘무소유, 비움과 나눔’ 캠페인을 펼친다.

이날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은 무소유 정신과 다양한 나눔 활동을 소개해 생활 속에서 비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서울 조계사뿐만 아니라 제6교구본사 마곡사, 제9교구본사 동화사, 제24교구본사 선운사에서도 동시에 열려 전국에 다양한 축하공연과 행사들이 생생하게 전해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스님과 연예인, 기업인 등의 기중물품을 현장에서 판매하는 경매를 비롯해, 비움을 실천하는 서약서 작성, 주변 사람들에게 비움을 권유하는 메시지 전하기 등으로 진행된다. 경매행사를 위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5인 남자 아이돌 그룹 빅뱅, 솔로 여가수 아이유 등이 물품을 기부했다.

또 마곡사와 동화사, 선운사를 동시 연결해 그동안 진행해온 활동을 소개하고 사찰에서 나눔을 펼치는 모습을 생중계 한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ARS 모금도 실시간으로 진행하며, 태진아, 이현우, 김태우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진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조계종에서 실시한 다양한 나눔활동들을 사전에 촬영한 영상으로 소개한다. 이날 공개하는 영상은 참된 무소유를 몸소 보여준 법정스님과 탤런트 고두심씨의 승가원 자원봉사활동 모습, 스님과 장애인이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 비움으로 행복 찾기 캠페인, 3000배 정진기도 등을 담은 것이다.

생방송은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며, 행사는 6시까지 이어진다. 행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름다운동행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정 아름다운동행 사무국장은 “이번 캠페인은 나와 주변을 돌아보며 움켜쥐는 것보다 비워가는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나눔의 행복을 실현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하안거 결계 및 포살 공고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공고문을 통해 “불기 2555년 하안거에 맞춰 대중결계 및 포살을 전국 각 교구본사와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등지에서 실시한다”면서 “오는 5월7일부터 17일까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 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해야한다”고 공고했다. 포살 시행일은 각 교구본사별로 지정해 시행하며 추후 별도의 공고를 통해 전하게 된다. 특히 2010년 분한신고 미필로 승적이 말소된 스님도 추후 특별분한 신고시 불이익이 없도록 이번 대중결계 및 포살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총무원은 3급 승가고시 응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소임현황을 취합한다. 소임현황 취합은 오는 5월7일부터 17일까지 재적 교구본사에서 이뤄지며, 구족계 수지 후 소임 현황을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어린이 포교에 도움되었으면…”

이화불교사, 박용근 대표 단주 5만개 보시

박용근 이화불교사 대표는 지난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2000만원 상당의 어린이 단주 5만개를 전달했다. 박용근 이화불교사 대표는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포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단주를 마련했다”면서 “해마다 어린이날 전에 어린이단주를 선물할 것이며 내년부터는 10만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근 이화불교사 대표(사진 맨오른쪽)가 지난 26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어린이 포교용 단주 5만개를 전달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사업하시기도 바쁘실텐데 어린이포교를 위해 올해도 단주를 선물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포교원을 통해 전국 사찰의 어린이법회와 불교유치원에 우선적으로 단주를 선물하겠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박 대표는 어린이단주 전달뿐만 아니라 군포교를 위해 수년째 군종특별교구에 원가로 단주를 전하고 있다. 또한 박 대표가 회장 소임을 맡고 있는 명불회(불교용품 제작 및 판매업체 대표 친목모임) 회원들과 함께 지난해 5월 조계종에 어린이단주 5만개를 전달했으며, 올해 가을부터는 불자인 독거노인들에게 방한용 점퍼를 선물할 계획이다.

박인탁 기자

자비나눔기금 2000만원 전달

서울 도선사

서울 도선사(주지 선묵스님)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도선사 주지 선묵스님은 지난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기금을 기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초파일을 앞두고 바쁜 일도 많을 텐데 기금을 전해줘 고맙다”며 “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기금으로 잘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봉축행사 원만회향 기원

대한불교진흥원

대한불교진흥원이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원만한 진행과 회향을 위해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에 봉축기금 5000만원을 전달〈사진〉했다. 김규칠 대한불교진흥원 상임이사는 지난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하고 봉축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원폭피해 2세를 위한 보시

아름다운동행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 원폭피해 2세 환우들을 위해 ‘땅 한평사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합천 평화의 집에 후원기금을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은 지난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윤여준 합천 평화의집 원장에게 4500만원을 전달〈사진〉했다. 기금 가운데 500만원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1000만원은 주식회사 코스콤에서, 500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에서 후원했다. 홍다영 기자

“정치인 참여 종단 지침대로”

중앙종회, 총무원장 스님에게 건의

조계종 총무원이 정부관계자와 정치인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한 봉축행사 종무지침을 내린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가 이를 원칙대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재정분과위원, 종책모임 대표 등 중앙종회의원 20명은 지난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건의했다.

종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종단에서 시달한 봉축행사 실천지침대로 봉축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명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므로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종회는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민족문화 수호활동과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한 로드맵 수립 △ 전국 사찰에 자성과 쇄신 결사 내용을 담은 봉축법문 시달 △각 사찰의 종교행사시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통일된 의전지침 마련 및 시달 등을 건의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5월말까지 토지 매각 없이 흥천사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토지 매각 없이 흥천사를 정상화할 방안이 없을 때에는 일주문 옆 공원부지를 매각해 흥천사 정화비용으로 마련하자고 논의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불교관련 분야 전문가 ‘평가’

문화재위원·전문위원 이력

〈1면에 이어〉

무형문화재분과 위원에 위촉된 인묵스님(봉선사 주지)은 운경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염불 수행에 매진해 왔다. 회암사 주지, 자재암 주지, 12대 중앙종회의원, 불교문화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불교어산작법학교장으로 불교의식 보급과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동산문화재 분과위원에 위촉된 흥선스님(불교중앙박물관장)은 녹원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직지사 성보박물관장 소임을 맡은 이후 불교문화재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성보문화재 보존·관리 및 발전에 공헌해왔다. 지난 2004년에는 제7회 전국박물관인대회에서 우수박물관인으로 선정돼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세계유산분과 위원으로 활동할 장적스님(총무원장 미디어홍보 특보)은 성진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조계종 총무원 재정국장, 제13, 14대 중앙종회의원, 대구불교방송 총괄본부장, 총무원 재무부장, 총무원 기획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 원통사 주지, 불교신문사 주간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건축문화재 분과에 위촉된 효탄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은 덕숭총림 수덕사 견성암에서 도율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동국대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교육원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문화재위원회에서도 건축문화재 분과위원으로 활동해왔다.

무형문화재분과 전문위원에 위촉된 미등스님(불교문화재연구소장)은 일면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공림사 감인선원과 봉암사 선원 등지에서 정진했으며, 봉선사 사회국장, 파주 성재암 주지, 총무원 기획국장, 불교문화재연구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동산문화재분과 전문위원에 위촉된 배재호 현재 용인대 문화재대학원장을 맡고 있으며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를 역임했다. 본지 논설위원이자 조계종 성보문화재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위원인 최성은 덕성여대 박물관장(건축문화재분과), 최응천 동국대 박물관장(동산문화재분과), 임돈희 동국대 교수(무형문화재분과), 김명자 안동대 교수(민속문화재분과)가 문화재위원에 위촉됐으며, 동국대 교수로는 정우택(동산문화재분과), 감상현(사적분과), 이혜은(세계유산분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엄태규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 제도’ 시행

- 스님의 안정적인 수행과 전법 기반 조성 -

○우리종단은 종도의 염원을 담아 지난 2011년 4월 **‘승려복지법’을 제정**하고 이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승려복지의 시행은 출가 **수행자의 본분사인 수행과 전법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종단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승려복지의 영역별 **시행 주체는 중앙종무기관, 교구본사, 사찰**입니다. 승려복지는 시행체계의 준비와 재정 여건의 준비 정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그 시행 대상과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종단은 2011년도에는 **65세 이상의 승려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및 요양시설 입소비 일부를 지원**하는 승려복지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승려복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년간 수백억 원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원은 종단의 예산 구조상 일시에 마련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종단은 승려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뜻있는 종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고 있으며, **승려복지 기금 조성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농협 | 301-0080-9225-91, 국민은행 | 023501-04-176129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승려복지)

※승려복지사업 : 팀장 2011-1710, 담당 2011-1726 ※승려복지후원 불사에 적극 동참 바랍니다.

종단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승려복지의 영역과 시행 방법

승려복지 영역		승려복지 시행	
보건의료분야	의료비 지원 요양비 지원 간병인 등 자원봉사자 지원 요양시설 위탁 지원 국민건강보험 가입 의무	1차 시행 (2011년 하반기)	의료비 일부 지원 요양비 일부 지원
수행연금분야	수혜금 지 국민연금 가입 의무	2차 시행	의 료 비 지원 확대 요 양 비 지원 확대 수혜금 지원 수 거주 지원
수행거주분야	승려노후복지시설 건립 간병인제 도입	별도 시행	승려노후복지시설 건립 (교구본사별 시 예정)

2011. 4.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